

# 4천병상 추가 확보...요양시설 면회 다시 비대면으로

### 중대본, 코로나 30만명 확진 대비...BA.5 변이 확산세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모든 편의점서 진단키트 판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4000여 병상을 더 확보하고 검사소를 늘리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 등의 접촉면회도 오는 25일부터 다시 중단하고 비대면 면회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گ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가 3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여름철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으나 재유행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오미크론 세부계통 BA.5 변이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주 BA.5 검출률이 52%로 사실상 우세종화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첫 조치로 이날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1435개 병상을 추가로 가동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병상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 11월 5·12·24일과 12월 10·22일을 이어 5번째다.

이 총괄조정관은 "병원들에 1주일 내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병상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또 중등증 환자나 기저질환 확진자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에도 기준에 다니던 병원 등에서 진료받고 입원할 수 있는 자율입원 의료기관을 지속해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첫째 주 중에는 응급실 병상 현황을 구급대가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판을 개선해 재유행에도 확진자와 비확진 응급환자 모두 24시간 이송·진료가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중증응급진환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응급의료기관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송지점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응급실에 코호트 구역을 추가로 확충하고,

거점전담병원 응급실에서는 코로나 응급환자를 필수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루 15만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지역상황실을 가동해 코로나 응급환자 전원 업무지원을 시행한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오는 25일부터 접촉면회를 중단하는 등 강화된 방역 관리를 적용한다. 대면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중사자들은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4차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검사가 면제된다. 현재 196개 운영 중인 의료기동전담반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정신요양시설로 활동 범위를 확대해 신속한 처방과 치료에 나선다.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중증 위중한 확진자들을 담당할 전담요양환자 병상이나 전담정신환자 병상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전체를 상대하는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자발적인 거리두기로 일상회복을 지속하면서 유행을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4곳으로 줄었던 임시선별진료소도 단계적으로 다시 확충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시행 중인 주말 검사 시간 연장도 확대 추진해 국민들이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단키트 수급관리도 강화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국 편의점들의 진단키트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이날부터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광주·전남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를 연속 각각 1000명을 넘어섰다. 이날 0시 기준 광주 1723명, 전남 160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를 연속 7만 명대를 기록한 20일 광주 북구 상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PCR검사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반려동물 장례방법에 친환경적 '수분해장' 추가

앞으로는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친환경적인 수분해장(水分解葬)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 20일 중소기업 유통부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장례 방식에 수분해장 방식을 추가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수분해장은 불과 고열을 이용하는 일반 화장과는 달리 시신을 알칼리 용액과 열, 압력을 이용해 가수분해하는 장사 방법이다.

가수분해 기술을 활용하면 동물 사체는 평균 상태가 되며 2시간 정도 안에 동물 사체뿐 아니라 병원체도 처리할 수 있다.

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화장할 때보다 4분의 1, 매장할 때보다는 6분의 1 정도에 불과해 환경친화적이라고 중소기업부서는 설명했다.

현재 이 방법으로 동물 사체를 완전히 멸균된 액상물질로 만드는 처리 기술이 개발돼 있으나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에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식은 화장이나 건조·멸균 분쇄 방식만 명시돼 있어 관련 기술을 개발한 기업 등이 중소기업부에 여러 차례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해 왔다.

중기 유통부서는 이에 따라 여러 차례 법령 개정 건의했으며, 지난해 6월 동물장묘업의 범위에 수분해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연합뉴스

## 한국 인신매매방지 2등급으로 미국, 20년만에 하향 조정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과 관련한 한국의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만에 하향 조정했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가별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있어서 한국의 등급을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은 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하며 전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적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아왔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등급 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이집트, 가나, 멕시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두 133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2등급 중에는 인신매매 피해가 늘지만 이에 비례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감시 리스트'에 오른 34개국도 포함돼 있다.

미국을 포함해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등 30개국은 1등급에 포함됐다.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최하위 국가로 평가됐다. /연합뉴스

##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고 1440만원 받으세요"

### 전남도, 저소득 청년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8월5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자 모집을 오는 8월 5일까지 진행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금액(10만~30만원)을 매칭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입을 위해서는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 통장사업인 '청년희망기움', '청년저축'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사업의 명칭이 변경되고 지원 대상의 범위도 확대됐다.

신청 당시 만 19~34세 청년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200만원, 가구 재산 기준 1억 7000만원 이하(중소도시 2억원, 대도시 3억 5000만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차상위 초과)인 조건을 충족하면 월 10만원의 금액이 지원된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인 대상자는 연령 범위가 만15~39세로 더 넓어지고, 지원금액도 월 30만 원으로 확대된다.

우흥실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이 도내 청년의 자립과 사회 정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래 설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을 바라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29일까지 첫 2주간은 출생일을 구분해 5부제로 접수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지분, 땅 삽·니·다 맹지는 안삽니다. 문의. 010-3605-5000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은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